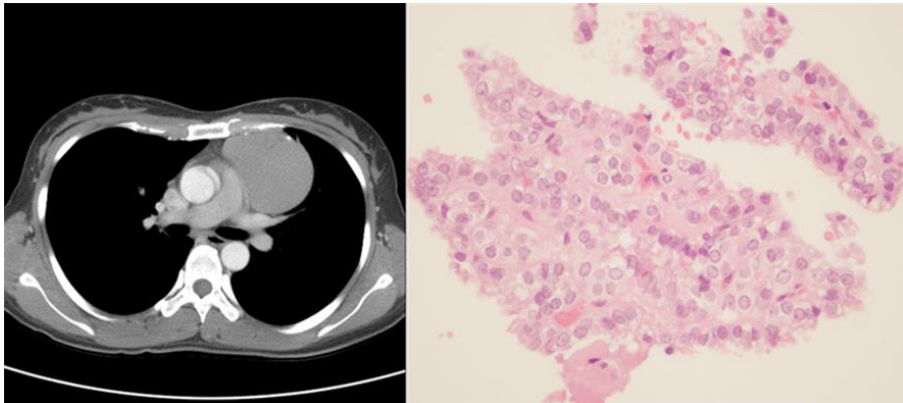


Anterior mediastinal mass로 나타난 Ectopic thyroid tissue에서 발견된 Papillary thyroid carcinoma

강동경희대병원

*장지민¹, 최천웅¹, 황계준¹, 김대현²

서론: Anterior mediastinal mass 중 가장 흔한 것은 thymoma이다. Ectopic thyroid tissue가 mediastinum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ectopic thyroid tissue에서 papillary thyroid carcinoma가 발견되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large cystic mediastinal mass가 papillary thyroid carcinoma를 함유한 ectopic thyroid tissue로 확인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특이병력 없는 37세 여자가 검진에서 CXR 이상소견 있어 시행한 흉부 CT에서 mediastinal mass 소견 보여 입원하였다. 흉부 CT에서 left anterior mediastinum에 약 5.5×5.8×6.7 cm size의 well defined relatively homogeneous mass소견 보였다. r/o Benign thymoma, r/o Teratoma 진단 하에 excision of the anterior mediastinal mass by VATS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 상 left anterosuperior mediastinum에 5x6x7cm sized well capsulated cystic mass 관찰되었고, brownish thick material을 포함하였으며, cavity wall에는 small solid nodule이 관찰되었다. 조직검사 결과 tumor cell을 포함한 papillary structure를 가진 papillary carcinoma를 함유한 Ectopic thyroid tissue가 확인되었다. **결론:** Mediastinum에 Ectopic thyroid tissue와 papillary thyroid carcinoma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본 증례가 보여준 바와 같이 malignancy 가능성에 대해 진료 볼 때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연 진단된 심막절개술후증후군 1예

¹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 ²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이명훈¹, 정재우¹, 최재철¹, 신종욱¹, 김재열¹, 박인원¹, 최병휘¹, 홍준화²

서론: 심장 수술 후 흉막 삼출의 발생은 흔한 경우이며, 대부분 비특이적 흉막삼출로 좋은 예후를 보인다. 또한 심근 혹은 심막 손상 후 면역반응으로 나타나는 심막절개술후증후군, 일명 Dressler 증후군으로 나타나거나, 심부전이나 폐색전증 등의 합병증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66세 여자환자로 대동맥관막치환술 후 발생한 흉막삼출 및 심장막 삼출액으로 심막절개술후증후군으로 지연 진단되어 이에 증례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6세 여자환자로 내원 하루 전부터 발생한 발열과 흉통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15일전 중등도의 대동맥관막협착증에 대하여 대동맥관막치환술을 받은 환자였고,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한 환자였다. 검사상 우측흉막삼출이 좀 더 우세한 양측성 흉막삼출 및 심장막 삼출이 있었고, 흉수검사상 삼출액 소견을 보였다. 심전도상에 특이한 변화는 없었으며 경식도흉부초음파 상 vegetation은 관찰되지 않았다. 10일간의 경험적 항생제 및 이뇨제 투여 및 반복적 흉수천자에도 흉막삼출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심장막 삼출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전 대동맥관막치환술 수술 시 우측 흉막에 관통손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심막절개술후증후군에 의해 발생한 심장막 삼출 및 흉막염으로 진단, 이에 항생제를 중단하고, 비스테로이드성진통소염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 후 흉막삼출은 호전되었고, 흉막삼출의 재발 관찰되지 않아 비스테로이드성진통소염제를 감량하며 퇴원하였다. **결론:** 본 증례를 통해 심장 수술 후 발생한 심장막 삼출 및 흉막염의 원인으로 심막절개술후증후군을 고려해야함을 인지하고 흉수 검사와 더불어 심낭염 및 심낭삼출 등 심장질환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함을 유의하여야겠다.